

수선화에 관한 몇가지 기억

땅거미가 지는 시간, 건초를 모아 모깃불을 피웠다.
어둑어둑한 하늘 아래 아련한 고향같은 연기 내음이 퍼졌다.
날이 완전히 어두워져도 전깃불을 켜지 않고 마루에서 혹은 건너편에 흩어져 있는 주춧돌에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눈다.
건초 위에 얹어 놓은 젖은 풀 사이로 퍼지는 연기와 그 아래 발갛게 달구어진 불빛만 보인다.

대원 지음
신국판/229쪽/값6,500원
솔과학

☎ 02-876-4655
서울 관악구 봉천4동 869-10 1110호



가장 손쉬운 깨달음의 길, 위빠사나 명상

초보자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일상 생활에도 응용할 수 있는 명상법, 위빠사나! 이 명상법을 차근차근 그리고 부지런히 연마하면, 사고와 관념과 굳어진 생각 따위에서 벗어나 아주 쉽게 깨달음으로 갈 수 있다.

"위빠사나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명상이다.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것도 위빠사나를 통해서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방편보다는 위빠사나를 통해 더 많이 깨달음을 얻었다"
- 오쇼 라즈니쉬

헤네폴라 구나라타나 지음
/ 손혜숙 옮김
신국판/262쪽/값8,000원
아름드리 미디어

☎ 02-3141-0221
서울 마포구 연남동 369-20 공명빌딩 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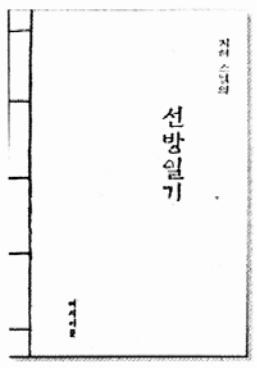


깨달음의 꽃1,2

이 두 권의 책에서는 "한국불교의 역사에서 비구니스님들이 없었다면 어떠 했을까?"
라는 물음에서 시작된다.
한국 근대 비구니스님들의 삶에는 옛 조사들의 치열한 구도열이 고스란히 살아 숨쉬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그것을 애써 외면하고 살았다.
이 책은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잊고 살았던 비구니들을 역사의 현장에 당당히 드러낸 한국최초로 발굴한 근현대 비구니 큰스님들의 행장이다.

하춘생 지음
신국판/296쪽/각권 8,000원
도서출판 여래

☎ 02-730-8976
서울 종로구 관훈동 1가 177번지 대형빌딩 201호



선방일기

선방일기는 1973년 봄 신동아의 논픽션 공모에 당선된 작품으로 지허(知虛)라는 서울대 출신 스님의 선방세서의 일과가 솔직담백하게 담겨있다. 일반인들로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선방에서의 수행 풍토는 물론이고 당시의 시대상까지 접할 수 있는 값진 글들이다.
수행자로서의 고뇌와 의지가 곳곳에 스며 있는 이 글은, 새로이 발심하여 출가 수행자의 길에 들어선 이들이나 재가불자, 그리고 불교에서 새로운 세기의 대안을 찾고자하는 이들에게 수행의 거울이 될 것이다.

지허 지음
4×6판/136쪽/값 5,000원
도서출판 여시아문

☎ 02-732-1521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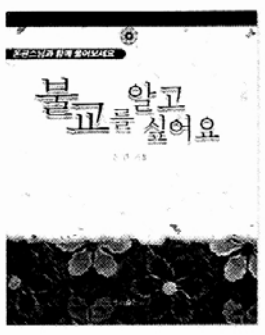
절알고보니 세상속에 있더라

이책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절에 갈 때 이 정도만
알고 가면 좋겠다 싶은 내용을 엮었다.
절에서 만나는 돌 하나,건물 하나,
그림 하늘에 담긴 뜻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엮었다.

귀로 듣고 얻는 것은
눈으로 보고 얻는 것보다 넓지 못하고
눈으로 보고 얻는 것은
마음으로 깨달아 얻는 것보다 깊지 못하다.

- 정련스님 추천사 중에서 -

성재도 글/사진
신국판/225쪽/값5,000원
날마다 좋은날 02)732-1521



불교를 알고 싶어요

BBS 대구불교방송의 신행상담 프로그램인 '열린불교, 지혜의샘'의 진행자 돈관 스님이 프로그램에 쏟아진 일반 불자들의 궁금증을 중심으로 방송 내용을 묶었다.
경전이야기 · 불보살이야기 · 상징이야기 · 기도수행이야기 · 신행이야기로 나누어 불교 의식과 문화, 상식, 교리 등 불자라면 알아야 할 기초 지식 등 그야말로 불교에 대해 궁금한 모든 것을 망라하고 있다.

돈관 지음
4×6 변형판/315쪽/값10,000원
우리출판사

☎ 02-313-5047
서울 서대문 충정로 3가1-38호

본 광고란에 소개된 책은 책방 여시아문의
특설 판매 코너에서
11월 30일까지 판매합니다.

책방 여시아문 개점 7주년

클릭 한번으로 책 주문이 가능합니다 여시아문 닷컴 www.yosamun.com ☎ 02)732-1521





능가사자기

초기 선종이 주로 <능가경>의 심요를 선지로 하여 심인상전(心印相傳)한 종(宗)이었기에 그 선사들을 능가사라 칭하고, 그 선법을 능가선, 그리고 그 종을 능가종이라 칭한다.
<능가사자기>는 초기 선종 선사들의 어록과 전기 및 그 계승관계를 명시한 책으로 1세기 전 돈황에서 발견되어 초기 선종사의 실상을 밝혀 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원문 및 우리말 번역과 주를 달아 이해를 돕고 있다.

정각 저/박건주 역주
신국판 양장/256쪽/값10,000원
운주사

☎ 02-3672-7181-5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1가 51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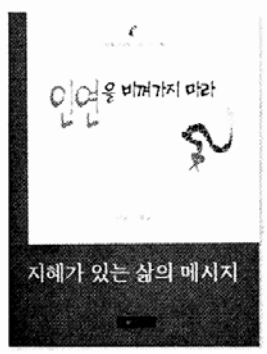
산하대지가 참빛이다

- 과학으로 보는 불교의 중심사상

이 책은 과학을 통해 본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고있는 책으로 부처님의 가르침과 불교와 과학, 연기론의 의미, 생명과 물질 세계에서의 연기론 및 중도사상에 대해 자세하게 서술했으며 부록으로 생명세계에 대한 확연적 이해와 선과 과학에서의 평등과 차별, 중도에 대해 내용을 담아내고 있다.

양형진 지음
신국판/288쪽/값 8,000원
도서출판 장경각

☎ 02-744-1541
서울성북구동소문동 1가 51번지 타운빌딩 2층



인연을 비껴가지 마라

평범한 현실에서 날카로운 깨달음을 주는 책
인연의 소중함을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지혜의 속삭임

우리가 기다리는 인연은 한달음에 달려오지 않는다. 오랜 시간 동안 쌓이고 쌓인 관계가 때가 되면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인연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것을 애써 찾으려 할게 아니라 언젠가 자연스럽게 다가올 누구를 위해 자신의 인격을 가다듬고 마음을 씻어내야 만 하는 것이다. 인연의 소중함을 믿는 사람들에게 보는 지혜의 속삭임을 느낄 수 있는 책이다.

이상각 엮음
신국판 /228쪽/값 7,000원
지혜의나무

☎ 02-730-2211
서울 종로구 관훈동 198-16 남도빌딩 3층



지금 여기에 살아라

있는 그대로 깨어 있어라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라.
그러면 느낄것이다.

삶에는 아무 목적도 없다. 삶 자체가 목적이다.
모든 목적을 버려라. 미래에 대한 관념을 버려라.
내일을 생각지 말라. 여기저기 분산된 그대의 의식을 한군데로 모아 지금 여기에 살아라.
그러면 한순간에 행복한 삶을 알게 될 것이다.

오쇼 라즈니쉬 강의/손민규 옮김
신국판/319쪽/값 9,800원
지혜의 나무

☎ 02-730-2211
서울 종로구 관훈동 198-16 남도빌딩 3층



말썽꾼 귀신도 내말은 듣지요

귀신 쫓는 성안스님의 퇴마 이야기와 마음 다스리기

귀신은 실제로 있는가?
1,000여명에 가까운 신병환자들과 직접 대화하면서, 그들의 몸속에 도사리고 있는 귀신들을 쫓아낸 퇴마스님 조성안. 이 책에는 그가 다양한 치유사례를 통해 밝혀낸 엄청난 비밀들과 치료 뒷이야기, 매스컴에 소개되면서 더 유명해진 적나라한 퇴마이야기가 가감 없이 소개되어 있다.

성안스님 지음
신국판/295쪽/값9,500원(테이프 포함)
청하출판사

☎ 02-702-1660~2
서울 마포구 용강동 117-4 월명빌딩 5층



달산스님의 수족온욕법

- 간편한 수족온욕법으로 과학을 앞서는 치료효과를 경험-

이 책은 남산스님이 15년간 연구, 임상실험한 민간치유요법을 근거로 수족은욕법의 효과를 100% 증대시켜주는 핵심 파스요법 및 테이핑 요법 145가지 및 각종 질병에 알맞는 수족은욕법의 시간과 물온도를 상세하게 수록 하고 있다.

경상중인 여러분 중에 한 번씩이라도 꾸준히 이 요법을 시행하면 성인병과 난치병으로 고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수족은욕법은 운동법이고 치료법이며,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다. 수족온욕법은 15년간 수수 임상실험을 거쳐 얻은 결과이다. 많은 사람들이 수족온욕법을 경험하여 맑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바란다

- 남산스님이 말하는 수족온욕법-

남산스님 지음
신국판/282쪽/값 10,000원
하남출판사

☎ 02-720-3211
서울 종로구 관훈동 198-16 남도빌딩 302호





국판 변형 / 237쪽 / 값 7,500원

푸른 섬 비진도의 작은 스님 이야기

꽃 담

혜만 스님

'들꽃들이 수줍은듯 고개 내민 나지막한 꽃담 너머 바다를 닮은 섬 스님이 발그레미소를 지으며 보석 같은 섬 비진도 이야기를 들려 줍니다.'

어느날 노트 한 권이 배달되어 왔습니다. 꼭꼭 눌러서 정성스레 쓴 노트에는 어느 섬 스님의 일상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바다 해, 너그러울 만. 해만 스님은 남해의 작은 섬 비진도에 암자를 마련하고 수행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책은 비구니 스님이 섬 생활을 하면서 겪은 에피소드를 따뜻한 시선으로 소박하게 담아 낸 수행기입니다.

시공사 www.sigongsa.com ☎ 02-588-083 서울 서초구 1628-1